

‘최대 50배 과징금’...프로야구 암표 근절되나

부당이익 몰수·신고 포상제·매크로 금지 8월까지 시행 프로스포츠 경기·인기 공연 등 웃돈거래 멈출지 주목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고질적인 웃돈 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매년 인기 공연과 프로스포츠 경기 때마다 반복돼 온 암표 문제가 실질적 처벌 규정 신설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있어 암표 문제가 실질적 처벌 규정 신설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공연법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있어 암표 문제가 실질적 처벌 규정 신설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 또는 추징된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시행은 6개월 뒤인 8월경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도 인기 스포츠 경기와 대형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반복돼 왔다.

특히 KIA 타이거즈의 광주 홈 개막·어린날 시리즈 등을 앞두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고, 곧바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에 정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의 재판매 글이 대거 올라오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일부 티켓은 정가의 수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실제로 통합우승을 거뒀던 2024년, 지난해에는 광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거래 사이트에 암표 의심 게시물이 잇따라 게시됐고, 이를 둘러싼 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

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거나, 실물 티켓 없이 입금만 유도하는 허위 판매 수법도 적지 않았다. 팬심을 자극해 ‘급하게 양도한다’거나 ‘지인 취소분’이라고 속이는 방식도 반복됐다.

암표·티켓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경찰은 당시 매표소와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매매 행위 단속에 나섰고, 일부 피의자들은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고 적용 법률이 제한적이어서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매크로 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았고, 거래 기록 확보 과정에서 플랫폼 협조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는 현행 제도가 ‘매크로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처벌 범위가 한정됐기 때문이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더라도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와 고가...

판매가 이뤄졌음에도, 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거래 형식을 띠는 경우에는 단속과 입증이 더 까다로웠다. 때문에 ‘암표 시장은 평생 사라질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자체가 금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찰은 제도 변화에 맞춰 단속 기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사기 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부정구매 단계부터 면밀히 들여다보고 상습·영업적 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7:08 달맞이 11:36
 맑음 18:58 달맞이 02:01



광주	구름	1~16
목포	구름	1~10
여수	구름	5~13
순천	구름	3~16
구례	구름	1~16
광주	맑음	0~15
신도	구름	3~14
흑산도	구름	4~9
진남	고풍	2~15
진도	구름	1~12

목포	미물(고)	07:58 / 19:52
	샘물(저)	00:13 / 13:03
여수	미물(고)	02:35 / 14:18
	샘물(저)	08:36 / 21:06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일당 검거

40대 주범 구속...공범 7명 불구속 입건

‘캄보디아에 가면 일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지인을 속여 해외 금융 범죄 조직에 넘긴 40대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24일 국외이송유인과 감금, 사기방지,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인 A씨(40대)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에 지인 B씨(40대)가 대표회장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인수하도록 꼬드긴 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캄보디아에 가면 일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B씨는 현지 범죄조

직에게 추가 대표회장 조달을 요구받으며 감금됐다가 지난해 10월에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일당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이중 A씨는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가 이달 23일 전남 여수 한 목욕탕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와 팀 미션 피싱 등 수법으로 7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gwangnam.co.kr



비 내리는 거리 광주·전남 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4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봄 기온 “평년보다 더 덥다”

3~5월 평균기온 보다 높을 확률 50% 이상...3·4월 강수량 ↓

올해 광주·전남지역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3개월 전망(3~5월)’에 따르면 올해 봄철 평균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다. 3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 4월은 평년(12.2~13.2도)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제시됐다. 5월 역시 평년(17.4~18.0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50%로 분석됐다.

이는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따뜻한 공기 유입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3월에는 북쪽 찬 공기의 일시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10년(2016~2025년) 광주·전남 봄철 평균기온은 13.5도로, 평년(12.6도)보다 0.9도 높았다. 같은 기간 평년 대비 평균기온 상승 폭은 3월 1.4도, 4월 0.9도, 5월 0.4도로 나타나 봄철 전반에 걸쳐 온난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3월 강수량은 평년

(61.6~91.3mm)보다 적을 확률이 50%, 4월도 평년(80.5~119.2mm)보다 적을 확률이 50%로 나타났다. 5월은 평년(110.1~131.4mm)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전망됐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양’의 삼극자 패턴과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형성돼 강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동아시아 상층의 고기압 발달에 영향을 미쳐 비가 적게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3~5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307.5mm로, 평년(272.8~344.3mm)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월 강수량은 평년

광주 초·중·고 103곳에 미래형 과학 공간 조성

광주지역 초·중·고교 103곳에 미래형 과학교육 공간이 조성된다.

광주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24일 “미래형 과학수업 공간인 ‘지능형 과학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는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포함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 학생 주도적 과학 수업 환경을 조성하는 미래형 실험실이다.

지난해 금구초·우산중·광주여고 등 7개 학교에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첨단초·동명중·광주고 등 103개 학교에 추가로 마련한다. 공간 리모델링보다는 기존 과학실

에 필수 기자재를 구축해 디지털 과학탐구 수업이 구현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사업은 상반기에 교육부 지원 32개교·교육청 지원 36개교 등 68개교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35개교를 추가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얻으며 답을 찾는 탐구 중심 과학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진영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원장은 “미래형 과학 학습 환경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도록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도 지속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

광산구, 전국 첫 장기기증자·유가족 종합 지원



24일 광산구청서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기기증자 유가족 종합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박병규 구청장(가운데)과 장기기증자 유가족 정현인(왼쪽)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산구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의 일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광산구는 장기 기증 이후 기증자와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유가족 종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선택이지만, 기증 과정과 이후 회복 단계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감내해야 할 상당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국립장기기증자지원센터 조사 결과 전국 장기 기증자는 2020년 3063명(뇌사

생활·심리·법률·장례까지 원스톱 체계 구축 생존 기증자 돌봄 강화...21개동 신형 간소화

478명·생존 기증 2585명)에서 2024년 2377명(뇌사 397명·생존 198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4년 4만5567명, 2025년 8월 기준 4만6935명으로 늘어났다. 대기 중 사망자도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70% 뛰었다.

광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10월) 광주 장기 기증자는 294명으로, 이중 248명이 생존 기증자였다. 광산구는 79명(생존 기증 66명)으로 집계됐다. 가족이나 지인 간 생존 기증 비율이 80%를 넘었다.

광산구는 이러한 현실이 기증 이후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종합지원체계를 마련에 착수한다.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 △심리·정신 상담 △법률 지원 △장례 예우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생존 기증자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겪는 일상 불편을 덜기 위해 가사 지원, 신체활동 보조, 외출 동행, 영양사 제공 등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울감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연계한다. 상속, 보험 처리 등 기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 상담을 지원한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장례 절차 지원도 포함,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1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장기기증 신형 간소화 서비스’도 운영한다.

광산구는 3월 중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광주도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즉시 연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며 “기증자와 가족에게 남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되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